

‘관료출신’ 이현승 vs ‘증권맨’ 황성엽 vs ‘現 회장’ 서유석

차기 금투협회장 누구?

금투협회장 선거 3개월 남짓 이현승·황성엽 공식출마 선언에 서유석·박정립·정영채 등 거론 10여명 잠재후보... 기대감 상승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립 전 KB증권 대표



정영채 메리츠증권 고문

차기(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돌아오고 있다. 공식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현재 두명이지만, 잠룡들까지 포함하면 10여명이 잠재 후보다.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거론되면서 투표권을 쥔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나 기대감은 예전보다 큰 편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이 대표는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으로 여러 금융사에서 최고경영자(CEO) 생활을 했다. 행정고시(32회)에 합격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에서 일하다가 GE에너지코리아를 거쳐 메릴린치증권, SK증권, 코람코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등의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 금융투자협회

비상근 부회장과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의 경험을 토대로 금융 당국과 매끄러운 소통을 책임지고 자본시장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소신으로 주목받는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도 지난 5일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황 사장은 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38년째 한 곳에서 일한 정통 ‘증권맨’이다. 자산운용, 법인사업, 투자은행(IB), 경영총괄 등 분야를 두루 거쳐 각자 대표로 승진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12월 말 임기가 끝나는 서유석 현 금투협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지도 선거의 주요 변수로 거론된

다. 회원사 사이에서는 ‘화합형 리더’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 다만 금투협에서 지금껏 회장 연임 사례는 없다.

이외에도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정영채 메리츠증권 고문(NH투자증권 전 사장), 박정립 전 KB증권 대표, 김신 전 SK증권 부회장, 장석훈 전 삼성증권 대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증권업계에서는 금투협 선거에서 가장 포괄적 영향력이 큰 ‘빅3’는 미래에셋그룹과 한투그룹, NH금융지주그룹이 꼽히는데, 현 서유석 회장이 미래에셋 출신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인 만큼 이번엔 한투와 NH투자 측이 회장을 배출하고 싶어 할 것이라 예측이 나온다.

정영채 고문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은 태풍의 핵으로 주목받는다.

유 부회장은 증권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주목받아 온 인물이다. 1998년 옛 대우증권에 입사해 증권업계에 발을 디딘 유 부회장은 대우증권 런던법인 재직 시절 한국 주식 거래량의 5%를 혼자 매매해 ‘전설의 제임스’로 불리기도 했다. 2007년 47세의 나이로 증권업계 최연소 CEO가 됐다. 이후 한

국투자증권을 업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놨고, 2018년 정일문 부회장이 자리 를 넘겨줬다.

정 고문은 대우증권에서 증권업의 첫발을 뗀 뒤 2005년 NH투자증권의 전신인 우리투자증권으로 자리를 옮겨 IB사업부 담당 임원을 13년간 역임했다. 당시 인수금융(IB) 리그테이블 선수를 놓치지 않았고 IB와 인수·합병(M&A) 사업을 개척하는 등 증권업계의 IB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대표적 인물로 통한다. 2018년 3월 22일 NH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성과를 매년 경신하며 3연임 CEO로 남았다. 다만, 정 고문이 올해 2월 메리츠증권의 IB 담당 상임고문으로 영입된 만큼, 단기간에 지금 자리를 포기하고 회장 ‘출사표’를 쓰긴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금투협은 올해 11월 후보추천위원회(후추회)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발표한다. 후추회가 최종후보를 확정하면 올해 12월 중반에 임시 총회가 열려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최건우 기자 geon@metrosec.co.kr

해외서 발 빼는 K-운용사... ‘우물 안 개구리’ 우려

‘K-자산운용사’ 현실

삼성·신한·키움 등 7대 운용사 중 미래에셋만 투자릿수 해외법인 보유 6곳은 현지법인 줄이거나 아예 없어 “순이익 하락, 수수료 깎기 경쟁 우려”



ChatGPT로 생성한 ‘해외 현지 법인을 청산하는 국내 자산운용사 관련 이미지’

글로벌 투자전쟁에서는 소외되면서 국내에서만 존재감을 발휘하는 ‘우물 안 개구리’. 글로벌 금융 리더를 꿈꾸지만 실상은 세계 수준에 비해 크게 뒤쳐진 것이 ‘K자산운용사’의 냉정한 현실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운용자산(AUM) 50조원 이상인 국내 자산운용사 7곳(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한국투자·한화·KB·NH아문디) 중 두 자릿수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해외법인을 늘린 곳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KB자산운용은 2023년 말까지 3곳

이었던 해외 법인을 지난해 4곳으로 늘렸지만, 연내 중국 상해 현지 법인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이 외에도 삼성자산운용이 4곳에서 3곳, 한화자산운용이 3곳에서 2곳, 신한자산운용이 1곳에서 0곳으로 줄어들었으며,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곳, 키움자산운용은 1곳을 유지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의 경우

는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움직임이 전무하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상해 법인은 소수 리서치 인력만 배치돼 있고 운용은 하지 않았던 만큼 해외 네트워크의 자원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5년 중 중국 상해 현지법인을 청산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내 투자자의 니즈를 고려해 타 지역 진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중국 텐진 법인을 정리했다. 같은 해 신한자산운용도 홍콩 법인 자산관리 사업 기능을 본사로 통합하면서 현지 법인이 문을 닫았다. 이에 대해 한화자산운용 측은 “싱가포르 법인을 중심 거점으로 중국, 홍콩, 동남아 등 범아시아 사업을 통합했다”면서 “중국 관련 사업은 지속해서 진행 중이며, 기존에 중국법인이 리서치 업무를 했었고 본사에도 리서치업무를 하는 중국인 운용역이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명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잔뜩 몸을 웅크리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만은 예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 진출이 소극적이었던 2003년 12월, 국내 최초의 해외운용법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설립을 이뤄냈다. 이후 2006년에는 인도를 시적해 미국과 베트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16개 지역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자산운용사들의 국내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수 인하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데, 시장의 규모는 커질 수 있으나 순이익은 오히려 부담”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과도한 수수료 깎기 경쟁을 우려하고 있고, 현재의 수익 구조나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하이메 발레스(Jaime Valles·왼쪽) AWS 아시아·태평양·일본총괄 부사장과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4일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AWS AI·클라우드 혁신 맞손

메리츠증권은 지난 4일 장원재 대표와 하이메 발레스(Jaime Valles) AWS 아시아·태평양·일본총괄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및 기존 IT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략적 협업은 지난 6월 AWS와 차세대 AI금융플랫폼 개발을 위해 맺은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이다. 이날 장 대표와 하이메 발레스 부사장은 안정성·확장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메리츠증권은 AWS 생성형 AI 혁신센터(GenAI Innovation Center)와 협력해 주식 종목 선별, 대화형 챗봇(Chat Bot) 등 차세대 금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AWS생성형 AI 혁신센터는 AWS가 총 2억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AI 특화 조직이다. 메리츠증권은 AWS생성형 AI 혁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 맞춤형 투자 지원과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리츠증권은 이와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던 IT 시스템을 AWS의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한 정밀 진단을 진행하고, 금융권 제도와 환경에 최적화된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국민연금, 1년간 해외기업 46곳 주총서 의결권 행사

43개 기업 미중시 상장 종목 385개 안건 중 93건에 ‘반대’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기업의 시장가치 제고를 통한 초과수익 창출을 최우선시하면서도 책임투자를 이와 조화시키려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최소 46개 해외기업 연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

출한 보고서와 기금공시 내역을 보면 이 중 43개 기업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이었다. 국민연금은 총 385개 안건 중 93건(24.2%)에서 반대 혹은 일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주제안이 아닌 이사회가 제출한 표결 의안(293건)만 보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91.5%(268건)에 이르렀다.

반대한 안건은 사외이사 장기 연임이나 주주총회 전자화, 과도한 임원 보수 승인 시도 등이 대부분이었다.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에

대해 직전 임기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으로 충실의무 수행 관련 우려가 있다며 올해 6월 알파벳 주총에서 임원 재선임에 반대한 것도 눈에 띈다.

기업가치 하락이나 주주 권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치적·이념적 목표를 위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주주제안 안건들에는 대체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1년 사이 주주제안 의안을 주총에 상정한 26개사와 관련해 국민연금

은 총 92건의 주주제안 중 68건(73.9%)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열린 마이크로소프트(MS) 주주총회에선 전체 6건의 주주제안 중 ‘군사용 제품 개발 현황 보고’, ‘인권침해 국내 데이터 사업 운영 보고’,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톨 보고’ 등 5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초 열린 애플 주총에선 ‘AI 데이터의 윤리적 수집 및 사용에 관한 보고’,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중단 요청’, ‘기부금 정보 보고’ 등 3건의 주주제안에 반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